한국, 기후변화 방지 노력 "꼴찌"

기후행동 네트워크, 56개국 중 48위 평가 … 최대방출 미국은 53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로 스웨덴이 꼽혔다.

<기후행동 네트워크-유럽>은 11월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환경단체인 저먼 워치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7 기후변화 수행지수>를 발표했는데, 스웨덴에 이어 영국과 덴마크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평가 대상 56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46위), 오스트레일리아(47위)에 이어 48위로 밀렸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방출국인 미국은 53위로 뒤처졌으며 이어 중국(54위), 말레이지아(55위), 사우디(56위)가 하위 3개국을 형성했다.

조사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던 56개국의 일원이거나, 세계 온실가스 방출에서 최소 1%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를 상대로 실시됐으며, 온실가스의 방출수준, 방출경향, 기후정책 등 3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한국이 기후변화 방지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2003년 국내 소비 에너지의 25%를 재생자원에서 얻은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EU) 평균인 6%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수도 스톡홀름의 시내버스 4대 중 1대는 에탄올이나 바이오가스로 운행되고 있다.

최하위인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으로 국가정책이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온실가스 방출이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16% 증가했는데, 미국은 경제적 비용과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조약인 교토의정서에서 2001년 탈퇴했다.

상위 3개국을 제외한 10위권 국가는 몰타(4위), 독일(5위), 아르헨티나(6위), 헝가리(7위), 브라질(8위), 인디아(9위), 스위스(10위)였으며, 아시아국 순위는 인디아에 이어 일본(26위), 싱가폴(28위), 인도네시아(43위), 우크라이나(44위), 한국(48위), 이란(49위), 타이(50위), 카자흐스탄(52위)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7>